

연휴 끝나자 정국 다시 전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돌입



추석 연휴가 끝나고 국회는 본격적인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20일가량 실시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폭 축소해 진행될 예정이다.

산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으로 북풍(北風)이 휘몰아친 외교통위와 국방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군 경계 실패와 대북 굴종외교 논란을 밀어붙일 전망이다. 청와대를 소관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살 사건 당시 문재인 대

통령이 휴가 특혜 의혹을 야당의 '정치공세'로 몰아가고 있지만 야당은 추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거짓 답변을 했다고 공격하고 있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과 달리 보좌관에게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국감에서 다시 급 추 장관의 대응이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위원회에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국가 부채 비율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오갈 전망이다. 정부위원회 국감의 뜨거운 감자는 사모펀드 논란이다.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증권사의 불안 전 판매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많다.

이밖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점검할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백신 상온 노출 사고 등에 대한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실험에 대한 결과를 설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장에는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총출동한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문자'로 촉발된 포털사이트 외압 논란 역시 국감을 달굴 전망이다.

김윤호기자

외통위·국방위, 北 해수부 공무원 사살 사건 쟁점 법사위, '추미에 국감' 전운...국민의힘 총공세 예상 정무위는 사모펀드...복지위, 코로나 치료제 등 공방

외교통일위원회는 국정감사가 다시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현지 재외공관 국감을 취소했다. 또 각종 상임위에서 지방 소재 기관을 방문해 진행하는 현장 감사 역시 최소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가 처음으로 진검승부를 겨루는 21대 국회 첫 국감인 만큼 곳곳이 쟁쟁터가 될 것이라 전망된다. 가장 뜨거운 상임위는 최근 해양수

통령의 행적을 묻는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된다. 지난해 '조국 국감'으로 가장 뜨거운 상임위였던 법제사법위원회는 올해도 '추미에 국감'으로 전운이 감돈다. 특히 12일 예정된 법무부 국감은 가장 주목받고 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추 장관과 정부-여당은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트럼프 코로나 확진에 폼페이오 방한 연기

미만 방문...중국이 일정 조정될듯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이 연기되며 한반도에서 격돌할 것으로 예상됐던 미중 양국의 외교전도 잠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폼페이오 장관의 아시아 순방 일정이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미 국무부는 10일 중 아시아 방문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미 국무부는 4일(한국시간) '폼페이오 장관의 아시아 방문 업데이트' 보도자료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4-6일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어 "10월에 다시 아시아를 여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몇 주 밖에 안 남은 아시아 방문 계획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4-8일 일본, 몽골, 한국 등 아시아를

순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미국시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월터 리드 군 병원에 입원하면서 폼페이오 장관의 해외 출장에도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백악관은 펜스 부통령에게 권한 이양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어느 때쯤 다시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이로써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일정도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뉴스스

“강경화, 가족에만 특별해외여행 허가 내렸나...기막혀”

“국민들은 해외여행 자제하고 성묘도 못 갔다”
“위로는 주지 못하고 분노만 가져다주는 정부”

국민의힘은 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가 요트를 구입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것에 대해 “외교 장관은 가족에만 특별해외여행허가를 내렸나”라며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정부의 해외여행 자제 권고에 따라 긴급한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추석성묘조차 못 갔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최 원내대변인은 “정작 정부 주무부처인 외교부 장관 남편은 마음대로 해외여행을 떠난다니 믿기 어렵다”며 “이게 제대로 된 문명국가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추석 연휴 동안 국민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 3층 세트에 절망했다”며 “국민이 총격 당

하고 시신이 훼손당해도 47시간 동안 대통령이 침묵했고 보좌관을 통해 아들 휴가 민원한 법무장관은 27차례나 국회에서 거짓말한 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고소고발을 운운하더니 외교 장관은 가족에만 특별해외여행허가를 내렸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경험하지 못할 추석을 보내고 있다”며 “국민에게 위로를 주지는 못하고 절망과 분노만 가져다주는 정부. 이게 나라냐고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 KBS는 앞서 강 장관의 배우자 이일병 전 교수가 요트 구입과 여행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보도했다. 출국 전 이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미국에서 요트를 구입해 카

리브해까지 항해할 계획이라고 적었다. 이 전 교수는 “유럽에 있는 뉴욕 알루미늄 보트 ‘캔터51’ 선주의 답이 왔다. 10월3일에 보자고 한다”며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항해 준비 계획을 적었다. 캔터51은 캔터라는 회사에서 만든 51피트, 약 15m 길이의 세일링 요트다. 이를 두고 외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황에서 긴급한 목적이 아닌 여행을 목적으로 외교장관의 배우자가 출국한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소병철,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빈점포 근본대책 촉구

박영선 장관 “해결방안 강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래갑, 법사위)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출석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빈 점포 방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중기부 소관 법률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이하 전통시장육성법)에 대한 대체토론이 열렸다. 소 의원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순천에도 전통시장 3곳이 있어 빈점포가 문제이다. 빈 점포를 해결하려면 용도를 늘려 주는 것이 근본적인 게 아니라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간 내에 빈 점포에 대해서 방치를 해버리는 경우, 옆의 점포들에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는 달리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은 없는



가”며 “이 빈 점포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촉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좀 더 전통시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서동용, 포스코에 광양항 발전 위한 책임있는 역할 강조

협력사 동반성장 주문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래군, 국회철강포럼 연구책임의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포스코 정책지원실, 포스코경영연구소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포스코와 협력사가 서로를 완벽한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는 기업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 공존과 공생, 동반성장 실천 등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포스코 역시 외부 경제 여건으로 인한 협력사의 위기 의식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으며, 협력사와 함께 힘들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동용 의원은 “포스코는 광양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축”이라며, “친환경 제철소, 친환경 경영을 위한 포스코의 노력이 광양항 수 소생산기지 건설 등과 함께 광양항 발전에 시너지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